

# 한-일 청소년 교류도 줄줄이 취소

### 광주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단 일본 교류 취소 전남도교육청, 일본 출장·체험학습 자제 권고 광주·전남 10여개교, 일본교류 행사 중단-보류

경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보복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본 여행 중단과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 꿈나무인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도 줄줄이 중단 또는 취소되고 있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10기 교류단 일본 방문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엔락회 등과 손잡고 당초 오는 28일부터 8월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 1, 2학년생 중 서류, 면접심사를 통과한 24명을 대상으로

로 평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백지화했다.

광복 74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일제 과거사 청산 필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세계평화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현장답사와 희생자 추모에 참여, 현지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등을 계획했으나, 죄다 '없던 일'이 됐다.

광주 모 고등학교 등 일부 학교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으로 예정했던 일본 현지 학교 방문과 문화교류 행사의 취소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 공무원들과

현장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산하 전체 기관과 각급 학교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권고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일본을 목적지로 한 공무원 출장과 현장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공무원출장의 경우 기관 교류, 연수 등 모든 일정 진행을 자제토록 했으며, 이미 계획된 출장도 가능한 변경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중인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능한 경우 장소를 변경토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생 체험학습 예약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와 보내 각급 학교의 수혜여행 등 일본현지 활동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2019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국외팀 28개 중 여학생활동이 계획된 일본팀 6개의 현지 활동이 전격 취소됐다. 8

개팀 중 2개 팀은 시일이 촉박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중이며 24일, 26일 귀국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성초, 동북초, 보성북내중, 진상중, 전남기술고등학교 등은 2학기 중 예정된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현재 학교 내 친일 잔재 청산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 29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청산작업 내용과 교육적 활용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일제치하 강제징용, 식민지배 배상 등에 대한 역사 계기교육을 강화하고 광복절태극기 달기, 소년상찾아가기 등 교육적 실천운동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대일(對日) 교류행사를 백지화하거나 행선지를 변경하는 학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한일 무역전쟁으로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은 데다 학부모들의 염려도 커 당초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학교 협동조합 체험으로 사회적경제 현장을 만나다

###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현장 맞춤형 교사 연수

광주시교육청이 사회적경제 교육과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현장 맞춤형 교사 연수를 27일까지 3일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연수 첫날인 24일 광주NGO센터에서 교사 20여 명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발달과정, 협동조합의 지속가능 원리, 학교에서의 활용 가능한 협동조합 교육활동 등을 살펴보고 광주교육에 적합한 사례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이번 교사 연수에는 특히 학교에서 참고할 협동조합의 현장을 탐방하는 일정이 포함됐다. 둘째 날인 25일 광주제일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일번지'를 찾아서 실제 협동조합 방식의 매점 운영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와 교육적 의미를 확인하는 탐

방이 진행됐다. 이밖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놀이터 혁신 프로그램 예술 창의놀이 등 혁신적인 콘텐츠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중심 협동조합 놀지의 특색 있는 활동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연수에 참가한 광주전자공고 임동현 교사는 "특성화학교에 필요한 학교 협동조합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됐다"며 "협동조합 준비와 운영에 대한 관련 기관의 구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정종문 장학관은 "사회적경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상상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전남교육청, 감사기법 등 연수...활동 방향 공유 자리 마련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등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감사관의 역할, 감사 기법,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연수를 받고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5일 보성 대비치콘도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및 제1차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연간활동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이들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변호사, 교수, 건축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회원 등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 '전남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은 앞으로 분기별 1차례 정기회를 갖고, 활동결과 보고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별 4개 분교로 나뉘어 비리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와 예산 운용 및 회계 관련 재무감사, 시설 공사 현장의 부실·부당시공, 과다설계 등을 점검하는 시설기동

감사 등에 투입된다. 또 부조리 관련 민원이나 중대한 민원 조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이나 교육비리의 수검, 제보제안 등 반부패·청렴활동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을 반부패 청렴 실천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활용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날 "우리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청렴한 전남교육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내 진로와 꿈에 따라 설계하는 수강 과목

### 전대사대부고 '선택과목 탐색의 날' 운영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교장 김중근)가 24일 '선택과목 탐색의 날'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직접 16개의 과목탐색부스를 돌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질문하고 상담하며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택과목 탐색의 날'은 교과별 부스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예술, 생활·요양 부스가 각 학년별, 교과별로 세팅되어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각 부스를 돌면서 교과서 및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교사나 선배의 설명을 듣고 간단한 실험 등을 했다. 이미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험을 해 보았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가며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전대사대부고는 2학년 학생 대상 (7.19), 1학년 학생 대상(7.22)으로 학년별 '선택과목 설명회'를 사전에 실시하였으며, 이번 선택과목 탐색의 날 부스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가까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층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2학년이 동시에 이동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상호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중근 교장은 이번 선택과목 탐색의 날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1학년 학생은 '과목 선택이 막막하기만 하였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 내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잘 설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무안교육지원청, 또래상담자 역량강화

### 심통방통(心統旁通) 진행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여름 방학을 맞아 지난 23, 24일 또래상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통방통(心統旁通)' 프로그램을 무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광주 패밀러랜드 문화체험장에서 중학생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통방통(心統旁通)' 프로그램은 상담자들과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또래관계의 소통과 친교에 바탕을 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운동 프로그램, 둘째 날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 향상을 돕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또래상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소통과 공감하고 배려하는 교우관계 형성과 함께 또래상담자 스스로 내면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또래상담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